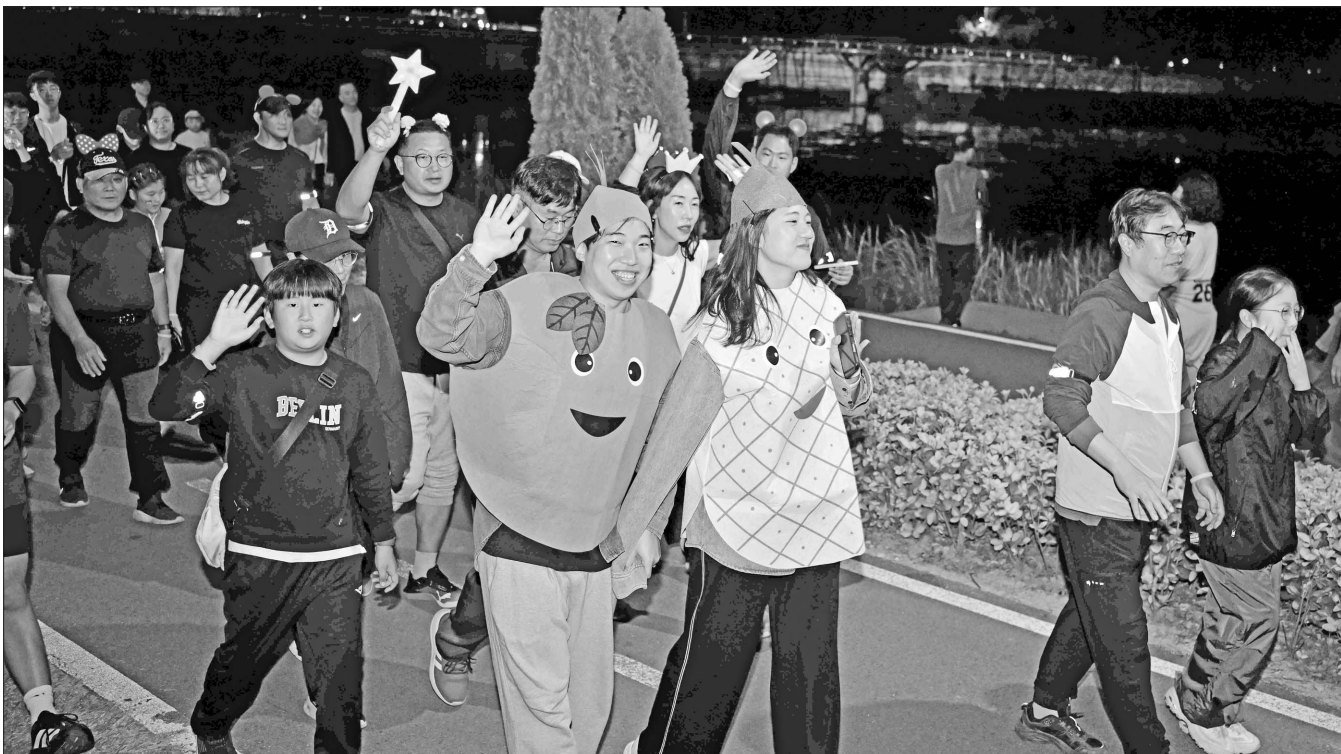




재미있는 복장을 하고 J-라이트런에 참가한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강변 곳곳에서 빼어로가 술몰해 즐거움을 켰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장성군청

##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콘텐츠로 사로잡았다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장성군이 야간 러닝과 음악 공연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1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개최한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에 25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축제장 점포 매출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3억59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축제에서 눈길을 끈 프로그램은 야간 러닝과 맥주 파티를 결합한 ‘J-라이트런’이다. 참가자들은 팔에 흰색 조명을 착

용하고 황룡정원을 출발해 청백리정원과 황미르랜드, 강 등을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2.5km 코스를 달렸다. 기록 경쟁 대신 완주에 의미를 둔 덕분에 가족·친구 단위 참가자들도 부담 없이 참여했다.

출발 전에는 DJ 댄스파티로 분위기를 달궜으며, 참가자 500명이 코스를 완주한 뒤에는 맥주 파티와 댄스튠 공연이 이어져 야간 축제의 열기를 더했다.

황룡강을 따라 펼쳐진 가을꽃도 주요 볼거리였다. 백일홍과 황화코스모스 등이 꽃

‘J-라이트런’ 500명 완주·DJ 댄스파티 등 차별화 가족 방문객 25만명·점포 매출 3억5900만원 흥행

길을 수놓으며 방문객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사했다. 토파어리 장식이 설치된 청백리정원과 다양한 포토존을 마련한 흥담정원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하트 모양 포토존은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설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주무대가 마련된 황룡정원에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잔디밭에 돛자리를 펴고 공연을 관람하거나 보드게임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황미르랜드 역시 넓은 잔디밭과 놀이터, 수경시설, 황토 맨발길 등을 갖춘 가족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

주무대가 있는 황룡정원과 황미르랜드 사이의 아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한 ‘황미르서클’도 방문객 편의를 높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안녕, 가을 콘서트’를 새롭게 선보이며 차별화를 꾀했다. 어반자카파와 가비엔제이의 감성적인 무대부터 YB와 레드시의 공연까지 낱씨별로 다채로운 음악을 배치해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축제는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활력을 불어넣었다. 축제기간 총 방문객은 25만

여명으로 추산됐다. 향토식당 6곳과 간단 먹거리 판매점 9곳, 푸드트럭 5곳, 농특산물 판매 부스 12곳 등이 운영됐으며, 전체 매출은 약 3억5900만원을 기록했다. 점포당 평균 매출은 112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21만원 증가했다.

김한중 군수는 “내년에는 더욱 즐겁고 행복한 축제를 선보이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을 내실 있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 나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전파수꾼 역할 ‘톡톡’

경찰 등 공무원 연중무휴 근무…2491대 모니터링  
치매노인·실종·위급상황 대응…범죄수사 지원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각종 사건·사고 수사 지원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시민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1일 나주시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관제요원 27명과 경찰관 등 공무원 5명이 연중무휴로 근무하며, 방범용 CCTV 2491대를 통합 관제하고 있다.

관제요원들은 교대근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되거나 시민에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할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달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관제센터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안전 상황에도 대응하고 있다.

치매노인 혹은 실종 신고 대상자가 포착될 경우 관련 영상을 통해 위치와 이동 방향을 확인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정

보를 공유해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아간에는 도로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장시간 배회하거나 쓰러져 있는 주취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등을 살펴 추가 사고를 예방한다.

시민들이 위급한 순간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CCTV 비상벨도 24시간 관제센터와 연결돼 있다.

여기에 각종 범죄나 사건 및 사고 발생 시에는 수사경찰관이 관련 영상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영상 검색과 조화, 판독과 분석을 지원한다.

시는 이처럼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상시 유지하면서 긴급상황 발생 시에 보다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관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민이 위험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의 대응을 연결하는 중요한 시민 안전 기반시설이다”며 “앞으로도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원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보성 출신 음악가 채동선 위상 재조명

군, 학술제 개최…옥필악보 복원·활용 방안 등 모색

별교 출신 음악가 채동선의 음악사적 위상과 그가 남긴 음악 자료의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21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별교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채동선 학술제 2026’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제는 채동선의 음악적 업적과 관련 자료의 학술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군이 추진 중인 채동선 옥필악보 복원사업과 연계해 자료의 보존뿐 아니라 연구와 활용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음악학자 홍정수가 기조 강연에서 ‘채

동선 음악의 음악사적 위치’를 주제로 한 국 근현대 음악사에서 채동선이 차지하는 위상과 주요 업적을 조명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채동선 자필 악보의 사료적 가치와 기악 작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채동선음악당에 소장된 여민락·영산회상보 등 전통음악 자료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봤다.

김희진 박사가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서는 채동선 관련 음악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음악 유산을 활용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 강진 갈대축제 즐기고, 장미는 ‘반값’

생산 농가 직접 판매…소비자 부담 완화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강진군은 가을 갈대축제 기간에 지역에서 생산한 장미를 시중 판매가격보다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강진 장미 알리기에 나선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장미 직거래 판매를 진행, 땅심화훼법인 소속 농가들이 참여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고품질의 강진 장미를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강진 장미는 은화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재배돼 선명한 색깔과 아름다운 꽃 모양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는 방문객들이 강진 장미의 우수한 품질과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생산 농가가 직접 판매에 나서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새로운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현장에서 장미를 구매하지 못했더라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축제가 끝난 뒤에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땅심장미’를 검색하면 강진에서 생산한 장미를 구매할 수 있어, 더 많은 소비자가

올해 초 열린 강진청자축제 기간에 방문객들이 장미를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강진군청

강진 장미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국 강진군 농정과장은 “갈대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강진 장미를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와 강진 장미의 인지도를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및 판매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순천보 전남광주통합특례시 순천시장이 신청사 새청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순천시청

## 순천 신청사 개소…시민 행정 ‘새출발’

종합민원실 등 14개 부서 업무 돌입

전남광주통합특례시순천시는 최근 종합민원실 등 14개 부서가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 11월 10일까지 10국 45실·과 970명의 직원이 단계적으로 입주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민원실을 우선 운영하고, 부서별 업무 개시 일정과 위치를 시 누리집에 안내하고 있다. 또 민원창구와 행정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청사 주변 도로 화·포장과 전선 지중화 등 기반시설 정비도 입주 일정에 맞춰 추진한다.

오는 12월 기존 청사 철거를 시작으로 지하주차장과 중앙공원, 신청사 연결건축물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를 추진해 2027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청사는 단순히 시청 건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공간을 만드는 일이다”며 “안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과 2단계 공사까지 꼼꼼히 챙겨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청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 함평,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 개최

내일까지 학교면 포우현

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 학교면 포우현에서 남도의 아름다운 글을 서예로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전시 행사가 개최된다.

21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10회 영산강 시서화 문화축제’가 23일까지 학교면 포우현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남도문화예술발전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남도의 아름다운 글 40점을 선정해 서예가들이 필묵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다. 남도의 아름

다운 글과 서예 등 지역의 전통문화를 통해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7일 열린 개전식에는 이남호 함평군수와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지역 예술인 등이 참석해 축제의 개최를 축하하고 전시 작품을 감상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남도의 글과 정서를 서예 작품으로 새롭게 표현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고,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지난 17일 함평군 학교면 포우현에서 열린 개전식에서 이남호 함평군수와 김영인 함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례시 함평군청